

불우한 삶과 찬란한 예술세계... 3인의 거장을 만나다

서울=김미은기자

살아 움직일듯한 황소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발길을 멈췄다.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애절한 마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뱀을 화관처럼 머리에 쓴 그녀의 자화상은 쓸쓸하다. 스스로 첼로가 된 작가의 퍼포먼스가 담긴 영상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중섭, 타계 10주기를 맞은 백남준, 그리고 1년 전 세상을 떠난 천경자.

한국을 대표하는 세 명의 거장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회고전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다. 세 개의 전시가 열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하기도 편하다. 천경자, 백남준 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평일인데도 전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대가의 작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미술관 나들이'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mekim@kwangju.co.kr

■ 백남준 10주기 추모전



'자화상 달마 휠' (1998)

7월 31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오노 요코 등 예술동지들 작품도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피비우스 피처럼 얽여있던 플렉서스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전시 제목이 '백남준+플렉서스'다.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과 함께 독일 쿤스트할레 브레멘 등에서 대어해온 비디오 조각, 설치 작품을 망라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모티브로 한 '이치 라이더', 영상에 비친 부처의 모습이 인상적인 'TV 부처', 유가족이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한 '시집 온 부처', '금붕어를 위한 소나타네' 등 다양한 작품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 그의 작업 세계를 담은 다양한 영상작품들도 흥미롭다. 그의 예술적 동지인 60년대 아방가르드 미술 운동 플렉서스 동료들 작품으로는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오노 요코 등이 전시됐다.

▲7월31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매주 월요일 휴관, 화·금(10시~8시) 뮤지엄 데이(첫째·셋째 화요일 10시~10시), 토·일·공휴일(10시~7시) 문의 02-2124-8800.

■ 천경자 1주기 추모전



'고' (1974)

8월 7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100여점·저서·사진·영상물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천경자 화백의 자화상,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다. 머리에 감긴 뱀, 한송이 장미, 그리고 그녀의 슬픈 표정.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모습이다.

추모전에서는 그녀가 1998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 93점 전제와 '초원 II'(1978) 등 대어 작품을 포함, 모두 1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화집 등에 소개된 대표작 대부분이 망라된 셈이다. 전시 주제는 '바람은 불어도 좋다. 여자 피 부는 바람이다'. 그녀의 저서 '자유로운 여자'에 등장한 '바람은 불어도 좋다. 여자 피 부는 바람이다. 어디서 일어 어디로 가는 지 모르는 바람들-그 위에 인생이 떠 있는 지도 모른다'에서 인용했다.

전시는 인생, 여행, 환상, 아가브 네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동경여전 1학년 때 그렸던 그림을 비롯해 여동생의 죽음을 겪으며 완성한 '생태',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지만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느껴지는 '고' 등이 눈길을 끈다.

오승우·임지순 등과 함께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베트남 중군화가단으로 참여해 그린 군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또 1960년대부터 해외 여행에 나섰던 그녀가 소설 '폭풍의 언덕'의 탄생지인 영국에서 그린 스케치를 비롯해 타티티,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린 '여행 풍

물화'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내 삶을 지탱해 준 건 꿈과 사랑과 모정'이라 했던 그녀가 막내아들들을 모델로 그린 '모기장 안 종종', 고향 고흥의 바다에서 모티브를 얻은 '초혼', '환상여행' 등도 눈길을 끈다.

그녀의 생생한 육성도 들을 수 있다. 소설가 김주영이 인터뷰어로 나선 1986년 자료에서 그녀는 "살기 위해 뱀을 그렸다"고, "불안 공포에 허덕이고 저항하며 그림을 그렸다"고, "눈 오는 날 아랫목에 아이 젖먹여 놓고 글 쓸 때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녀의 저서, 사진, 영상물 등도 만날 수 있다.

▲8월 7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월요일 휴관. 화·금(10시~8시) 뮤지엄 데이(첫째·셋째 화요일 10시~10시), 토·일·공휴일(10시~7시) 문의 02-2124-8800.



베트남전 중군화가단 시절의 천경자 화백

■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전

10월 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

"저택이나 사원같은데 전장이며 백대아 온통 그림을 그리고 싶어. 먹을 것만 준다면 말야." 전시장에 적힌 글귀는 불운했던 이중섭의 삶과 오버랩되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100년의 신화'전은 이중섭의 '꿈과 좌절'의 경로를 좇는 방식으로 구성돼 평양, 서귀포, 부산, 통영, 서울 등 그가 머물렀던 '공간'을 따라가며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상징인 '소'를 그렸던 그는 가난한 피란 시절에도 가족과 행복한 시절을 보내며 순진무구한 그림을 그려나갔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후 사기를 당하고, 생활고 속에서 거식증을 동반한 정신 질환으로 불행한 삶을 마무리했다. 그의 대표작 '소'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사람들을 뺨아들인다. 금방이라도 화면에서 뛰쳐



▲이중섭이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화'.

나올 것 같은 '흰소', 슬픈 눈망울이 잊혀지지 않는 '황소', 사랑하는 식구들과 재회를 꿈꾸며 그린 '길 떠나는 가족' 속의 소 등 다양한 작품은 역동성이 느껴진다. 관객들의 발길이 오래 머무는 곳 중 하나는 '편지화' 섹션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일본으로 떠나고 한국에 홀로 남겨진 그는 가족들에게 그림을 결들인 편지를 끊임없이 보낸다. 특히 아이들에게 보낸 장난기 어린 그림에서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물씬 풍긴다. 한글로 번역된 글을 읽다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가득해진다.



'흰 소' (1955)

"예술을 한다고 공밥을 얻어먹고 대단한 예술가가 될 것처럼 세상을 속여왔다"고 자책하며 힘든 말년을 보냈던 그였기에 그의 천진난만한 그림들은 오히려 마음을 아리게 한다. 어 그림을 그린 '은지화' 작품에서는 동심이 느껴지며 일본인 아내에게 보냈던 '엽서화' 덜 알려진 풍경화도 인상적이다.

▲10월 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 티켓 가격 성인 7000원, 초중고 유치원 4000원. 매주 월요일 휴관, 화·목·금·일(10시~7시), 수·토(10시~9시), 문의 02-522-3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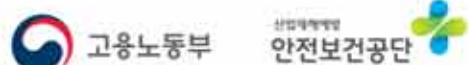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가족대표로 산업현장에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 하세요



우리 일터에서는 매일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250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일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대표로 산업현장에 있습니다. 나의 안전이 곧 가족의 안전입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 가족의 행복을 지킵니다.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주간 기념식 및 기술세미나 개최

정부에서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강조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주간 기념식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 하오니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와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2016. 6. 29(수) 13:00 ~ 17:30
장 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참석대상 사업장/기업의 안전보건관계자
참석신청 행사당일 참석 (무료입장)

1부 산업안전보건주간 기념식 및 정부포상
2부 4개 분야별 기술세미나 개최
▶ 산업안전, 산업보건, 건설안전, 서비스업

